



## KIA日 전훈캠프를 가다

미야자키=김여울 기자



# 유동훈 “중간 계투 책임진다” 군제대 후 첫 실전 피칭 호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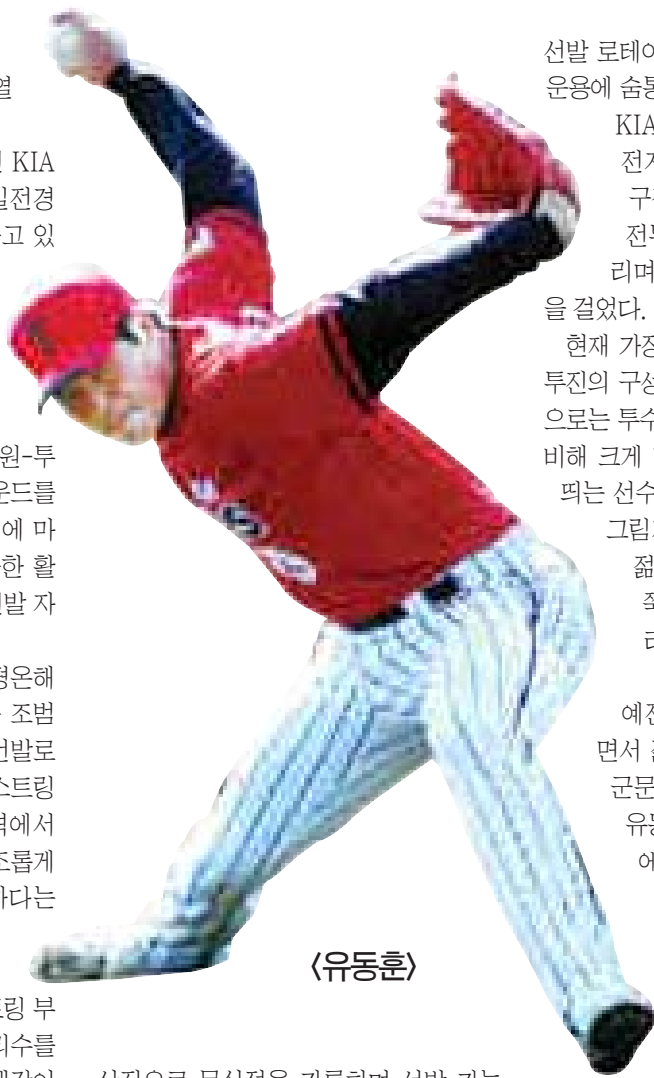
전지훈련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KIA 타이거즈의 불꽃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일본 미야자키에서 전지훈련중인 KIA는 자체 청백전과 야쿠르트와의 실전경기를 통해 투수들의 역량을 가늠하고 있다. 'V10'을 목표로 한 KIA의 입장에서 확실한 계투진의 구성이 필수적이다.

몇년 간 선발진의 붕괴로 투수 로테이션에 어려움을 겪어온 KIA는 올해 노련미의 서재응과 리마로 원-투 펀치를 구성해 8개 구단 최고의 마운드를 보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거기에 마무리에서 중간 선발을 오가며 꾸준한 활약을 해왔던 윤석민도 일찌감치 3선발 자리를 예약해 두었다.

겉으로 보기에 KIA의 마운드는 평온해 보이지만 필승 전략을 세우고 있는 조범현 감독의 고민은 깊다. 확실한 1선발로 나뉠해놓은 서재응이 갑작스런 헬스트링(허벅지 뒤쪽 근육)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했다. 다행히 재활 훈련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개막전 선발도 가능하다는 조심스런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훈련량이 부족한 상대로 100%의 컨디션을 장담할 수 없다. 또 헬스트링 부상의 경우 재발이 잦기 때문에 무리수를 두지 않겠다는 게 조범현 감독의 생각이다.

조범현 감독은 좌완 전병두와 노장 이대진의 활약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병두는 직각으로 공을 뿌리던 투구폼에서 왼팔을 자연스럽게 내리면서 제구력이 좋아졌다. 19일과 23일 청백전에서 5이닝 동안 21타자를 상대로 4피안타 3볼넷 5탈



〈유동훈〉

선발 로테이션을 지켜준다면 KIA마운드는 운용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KIA 뒷문은 한기주가 맡게 된다. 전지훈련에서 투구폼 수정과 새 구질 개발을 한 한기주는 첫 실전투구에서 150km의 강속구를 뿌리며 40세이브 달성 목표에 시동을 걸었다.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확실한 중간 계투진의 구성이다. 조범현 감독은 “전체적으로는 투수들의 실력과 컨디션이 예년에 비해 크게 향상됐지만, 주전감으로 눈에 띄는 선수가 없다”며 “확실한 윤곽없이 그림자만 아른 거린다”고 밝혔다.

젊은 투수들의 컨디션이 들쭉날쭉해 중간 계투진의 윤곽을 그리는 게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유동훈이 예전의 기량으로 허리를 책임지면서 젊은 투수들을 이끄는 것이다.

군문제로 3년간의 공백을 가졌던 유동훈은 지난 19일 첫 실전 피칭에서 2이닝 7타자를 2피안타 1탈삼진을 기록하며 상쾌한 출발을 했다. 입대전 KIA 전력의 큰 부분을 차지했던 유동훈은 “현재 컨디션이 80% 정도까지 올라왔다”며 “몇 번의 실전 투구를 거

치면 예전의 불을 뿌릴 수 있을 것 같다”며 자신감을 내보이고 있다.

이외에도 박정태와 양현종을 비롯해 진민호·손영민·임준혁·이동현·곽정철 등도 출격 명령을 기다리며 2008시즌 개막을 준비하고 있다. <끝>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곽태휘〉

〈조원희〉

## 허정무호 日과 무승부... 동아시아대회 우승 곽태휘·박원재·조원희 등 경쟁력 검증 성과

허정무호가 출범 후 첫 국제대회 우승과 더불어 젊은 피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뒀다.

2008 동아시아선수권대회에 나선 허정무호는 사실상 2진급의 전력이었지만 1승2무, 무패로 대회를 마감했다. 한국 대표팀은 지난 23일 오후 중국 충칭 올림픽스포츠허에서 열린 2008 동아시아선수권대회 최종전에서 전반 14분 ‘황금 선발’ 열기훈의 선제골로 앞서 갔지만 후반 22분 야마세 고지에게 빼어난 동점골을 내줘 1-1로 비겼다.

이로써 1승2무(승점 5)가 된 한국은 일본(1승2무)과 승점이 같지만 다득점에서 앞서 2003년 이후 5년 만에 우승했다. 골득실(+1)까지 같지만 다득점에서 한국이 득 5, 실 4로 일본(득 3, 실 2)에 앞섰다. 북한은 중국 1-3으로 역전패, 2무1패(승점 2)가 되면서 최하위로 처졌고 개최국 중국은 1승2패(승점 3)로 3위가 됐다

허정무 감독으로서는 젊고 경험이 없던

새 얼굴로 ‘새 판’을 짜는 데 성공해 이들의 경쟁력을 확인하는 좋은 기회였다. 하지만 집중력 저하로 인한 수비 불안과 같은 고질적인 과제도 동시에 되풀이 됐다.

◇세 얼굴 젊은 피, 가능성 보였다=이번 대회에 참가한 22명 중 해외파는 올 시즌부터 일본 J-리그에서 뛰게 된 주장 김남일(빗셀고베) 뿐이다. 경험도 보잘 것 없다. 이번 대회 참가 전 A매치를 10회 이상 펼친 선수는 김남일과 김용태(광주), 박주영(서울), 조원희(수원), 열기훈(울산), 이관우(수원) 등 6명에 불과했다.

허 감독은 이번 대회를 어리지만 잠재력 있는 새내기들과 큰 경기 경험은 부족하지만 재능있는 ‘중고 신인’들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기회로 삼았다. 허 감독은 조용현(제주), 곽태휘(전남), 이종민(울산), 박원재(포항), 조원희(수원) 등의 이름을 열거하며 “젊은 선수들이 크게 향상된 모습을 보여줬다”며 이들의 경쟁력을 검증한 것을 성과로 꼽았다.

◇스리백·포백 적응력 키워다=허정무

감독은 중국과 1차전에서 3-4-3 전술을, 북한과 2차전에서는 4-3-3 전술을 사용했다. 그리고 일본과 마지막 경기에서는 3-5-2 전술로 맞서는 등 매 경기 큰 틀을 달리했다. 상대가 투름으로 나온 중국전은 스리백으로, 원톱 정대세를 최전방 깊숙이 배치하는 북한과 대결에는 포백으로 유연하게 변화를 줬다. 상대가 원톱으로 나온 일본전에는 중앙 수비수 둘을 두는 포백이 정석이지만 사이드 풀백 자원이 마땅치 않자 스리백을 들고 나왔다.

◇세 경기 모두 선제골·결과는 1승2무=한국은 이번 대회 세 경기 모두 선제골을 넣었다. 허정무호는 해외파가 빠지고 대회 전 정조국(서울)과 조재진(전북) 등의 부상에 이어 충칭에 온 뒤로도 박주영과 고기구(전남) 등 스트라이커 자원들이 다져 제대로 경기를 치르지 못하는 약조였다. 북한과 일본과는 비겼고, 중국전에서는 역전까지 허용한 뒤 가까스로 승리를 챙겼다.

리드를 잡아 경기를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살리지 못한 데 대해 허 감독은 “순간적인 집중력 부족과 노련하게 경기를 컨트롤해 줄 수 있는 선수가 부족했다”는 데서 원인을 찾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연합뉴스



'V10'을 목표로 세운 KIA타이거즈의 투수들이 미야자키 오쿠라기하마 구장 마운드에서 수비연습을 하고 있다.

## 최희섭 또 어지럼증... 조기 귀국

메이저리그 출신 좌타자 최희섭(29)이 또 두통을 호소하며 24일 전지훈련을 중단하고 조기 귀국하면서 KIA 타이거즈가 애를 태우고 있다.

지난 1월 말 광 전훈캠프에서 두통으로 일시 귀국해 세 차례 정밀 검진을 한 뒤 2차 전지훈련 일본 미야자키로 떠났던 최희섭은 19일부터 또 두통을 앓아 정상 훈련을 하지 못

했고 결국 조범현 감독과 상의 끝에 조기 귀국을 택했다.

최희섭이 두통을 호소하는 이유는 뇌진탕 후유증과 한국식 강훈련에 대한 적응이 덜 끝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희섭은 지난 2003년 시카고 컵스 시절 리글리필드에서 벌어진 뉴욕 양키스전에서 내야에 높이 뜬 공을 처리하던 중 투수 케리

우드와 충돌하면서 균형을 잃고 뒷머리를 그대로 땅에 부딪혔다. 한동안 의식을 차리지 못했던 최희섭은 결국 뇌진탕 진단을 받고 한동안 휴식을 취한 뒤 정상적으로 게임에 출전했다.

2006년까지 미국에 있으면서 뇌진탕 후유증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올해 한국에서 본격적인 첫 스프링캠프를 치르면서 통증이 도진 것으로 보인다.

KIA 관계자는 “최희섭이 훈련량을 조절하거나 전담 트레이너가 스케줄을 관리하는 ‘맞춤형 훈련’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최경주, 우즈에 막혀

### 월드챔피언십 4강 진출 실패

세계 64강이 겨루는 월드골프챔피언십(WGC) 악센추어 매치플레이 챔피언십에서 최경주(38·나이키골프)가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에 막혀 4강 진출에 실패했다.

최경주는 24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투산 갤러리골프장 남코스(파72·7천351야드)에서 열린 대회 8강전에서 우즈에 3홀 차로 졌다.

1번홀(파5)에서 우즈의 티샷이 페어웨이를 한참 벗어나 담뽀 속에 떨어지면서 쉽게 1홀을 앞선 최경주는 2번홀(파4)에서 5m 버디를 잡은 우즈에게 급세 추격을 허용했다.

승부의 균형은 10번홀(파5)에서 우즈가 집인 이글을 잡아내면서 깨졌다. 두번째샷을 그린에 올리지는 못했으나 그린 밖에서 웨지로 친 볼이 홀에 빨려들어가면서 우즈는 1홀 앞서 나갔다.

최경주는 15번홀(파4)에서 두번째샷을 홀 1.2m앞에 붙여 1홀을 만회하는 듯 했지만 우즈가 10m짜리 버디 퍼트를 먼저 잡아 넣는 바람에 추격의 실마리를 풀어나지 못했다. 경기는 둘 다 파를 적어낸 16번홀(파3)에서 끝나고 말았다.

우즈는 골이 벌어진 4강전에서 작년 대회 우승자 헨리 스텐슨(스웨덴)마저 3홀차로 완파, 결승에 진출했다.

## 장정, 크리머에 뒤집혀

### LPGA 필즈오픈 준우승

올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한국 선수 첫 우승을 눈앞에 뒀던 장정(28·기업은행)이 빠이론 역전패를 당해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장정은 24일(한국시간) 미국 하와이주 카플레이의 코올리나골프장(파72·6천519야드)에서 열린 LPGA투어 필즈오픈 최종 라운드에서 3언더파 69타를 쳤지만 6타를 줄인 폴라 크리머(미국)에게 1타차 우승을 내줬다.

15번홀까지 장정에 2타 뒤졌던 크리머는

16번홀(파3)과 17번홀(파4) 버디로 따라붙은 뒤 18번홀(파4)에서도 버디를 잡는 등 마지막 3홀에서 3타를 줄여 짜릿한 역전극을 연출했다.

한희원(30·힐라코리아)이 공동7위(10언더파 206타), 김초롱(24)이 공동10위(9언더파 207타)에 올라 ‘톱10’에 든 한국 선수는 3명이었다.

부활 조짐을 보이는 듯 했던 위성미(19·미국 이름 미셸 위)는 버디 3개를 수확했으나 트리블보기 1개, 더블보기 1개, 보기 4개를 쏟아내며 6오버파 78타를 쳐 꼴찌(4오버파 220타)로 대회를 마쳤다.

## 여자 축구, 북에 0-4 패

안익수 감독이 이끄는 한국 여자 축구대표팀은 24일 낮(이하 한국시간) 중국 충칭시 영원구 스포츠센터에서 펼쳐진 북한과 2008 동아시아선수권대회 여자부 풀리그 최종전에서 전반에 북한의 맹공을 잘 막아내다 후반에만 4골을 헌납하며 0-4로 완패했다.

18일 중국과 1차전에서 2-3으로 진 뒤 21일 일본과 2차전도 0-2로 패한 한국은 이로써 3전 전패로 고개를 떨쳤다. 북한과 역대 전적에서도 한국은 1승1무9패로 일방적인 열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한국은 전반에 거센 공세를 잘 막아냈지만 후반 들어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북한은 후반 7분 리금숙이 오른쪽 측면에서 올린 땅볼 크로스를 김영애가 오른쪽 슈팅을 날렸고, 이를 한국 수문장 김정미(현대제철)가 막아냈지만 김영애가 다시 튕겨져 나온 볼을 오른쪽으로 밀어넣었다.

한국은 후반 23분 북한 수비수 홍명금에게 헤딩 추가골을 허용했고, 1분 뒤 리금숙에게 세번째 골을 내주고 말았다. 순식 간에 점수가 3점 차로 벌어지자 한국은 더 이상 추격할 힘을 잃었고 후반 32분에는 김영애에게 네번째 골까지 허용하며 무릎을 꿇었다.

골프·윈도·호텔·관광·전문기업

**특별회원권**

골프 동시회원권	골프 동시회원권
관 주 3,500	승 실패 1,700
남관 주 4,400	승 실패 1,900
클럽900 6,400	포탈 2,100

성당 문의 (062)351-0095